

“퇴직자 10명 중 8명은 퇴직금 1000만원 이하”

국제통계연보, 50대 이상 퇴직자 1인당 퇴직금액 2744만원

퇴직자 10명 중 약 8명은 퇴직금으로 1000만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 260만3596명의 근로자가 퇴직했다. 이 가운데 퇴직급여로 1000만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는 202만5547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77.9%를 차지했다.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0만5563명,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3만7637명이었다.

퇴직급여로 1억원을 넘게 받은 근로자는 6만2540명으로 전체 근

로자의 2.4%를 차지했다.

퇴직급여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만6682명,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만3472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900명이었다. 5억원 넘게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3386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 퇴직자의 1인당 퇴직금이 평균 27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 퇴직자가 1655만원, 30대 이상은 107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은 896만원, 30세 미만은 448만원 이었다.

퇴직자 중 상당수가 1000만원

을 밑도는 퇴직금을 받은 이유는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6년 기준,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2016년에 3만2453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1.2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5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96만336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75.4%를 차지했다. 5년 이상~10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47만8453명(18.3%), 10년 이상~20년 미만은 9만9946명(3.8%),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만3884명(1.1%)이었다.



‘평창 스니커즈’ 판매 중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2일부터 9층 행사장에서 ‘평창 스니커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창 스니커즈는 롯데백화점이 ‘평창 토탈패션’에 이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기획한 두 번째 상품이다. 천연 소가죽 소재로 제작됐으며, 신발 뒤축에 평창 동계올림픽 슬로건 ‘Passion. Connected’가 새겨져 있고, 사이즈는 220mm부터 280mm까지 10mm 단위로 출시됐다. 가격은 1컬레에 5만원이며, 학생증을 소지한 고객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계절 가전’ 된 에어컨, 한겨울부터 예약판매 시작



지구 온난화 현상과 미세먼지가 가전 지평도를 바꾸고 있다. 대표적 계절 가전이었던 에어컨은 공기청정기능과 난방 기능을 탑재하면서 사실상 4계절 가전이 되며 매출이 급증했다.

에어컨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해, 4월부터 공급 물량이 달리기 시작하고 5월에는 배선이 지연되면서 문의가 빗발쳤으며, 6월 이후에는 설치를 못 받은 가구들이 크게 밀려 있었다.

지난해 ‘에어컨 대란’ 등의 학습효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에어컨 예약판매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4계절 가전으로 사용이 가능해진 에어컨을 ‘대란 전 미리미

리 준비하지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혹서·혹한·미세먼지 등 영향 빨라건조기·스타일러 급성장

이마트는 18일부터 에어컨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예약판매 종료 시기는 3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4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에어컨 제조사들은 이번 주부터 2018년 신규 모델 생산에 들어간다.

에어컨 비성수기에 이뤄지는 예

약판매의 장점은 ‘프로모션’과 ‘배송’이다.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연 없이 원하는 때에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가전시장을 분석해보면 에어컨 성장세가 단연 눈에 띈다. 2016년 폭염으로 인해 기록적인 성장을 거둔 에어컨은 2017년에도 국내 시장 280만대로 전년 대비 50% 성장한 기록을 남겼다.

이에 맞춰 올해 제조사는 2~3월 생산 물량을 늘리는 한편, 실내 미세먼지와 공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오염물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이 작동되는 공기청정 기능 에어컨 모델을 확대했다. 또 인공지능을 탑재해 복잡한 기능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명령하고 상황별 맞춤 제안까지 받을 수 있는 지능형 음성인식 에어컨을 신상품으로 내놓으면서 올해도 에어컨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7년 이마트의 가전 매출은 전년 대비 13% 성장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에어컨과 함께 빨래건조기와 스타일러가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지난해, 창문을 열 수 없는 날이 많아 손쉽게 빨래를 말릴 수 있는 건조기와 옷에 잔류한 황사와 미세먼지를 털어주는 핵심 기능이 있는 스타일러가 각광받은 것이다.

뉴스스

현대·기아차, 올해美시장 키워드 ‘내실’

작년 미국판매 127만5223대...10.4% 감소

올해 판매목표 현대 71.6만대·기아 61만대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미국시장 키워드를 ‘내실’로 잡았다.

1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기아차(제네시스 포함)의 미국 시장 판매는 127만5223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감소했다. 2013년 이후 4년만의 첫 판매 감소세다.

올해 시장 환경 역시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산업 수요는 전년 대비 1.8% 줄어들며 8년 만에 감소했으며, 올해도 금리상승에 따른 실구매 부담 증가 등으로 1.7% 수준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데 달친 격으로 환율 불안과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차 브랜드의 공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권역별 자율경영체 도입을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 ▲제네시스 브랜드 고급화 박차 ▲SUV 등 신차 투입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고객 대상의 창의적인 마케팅 프로그램 실행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등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현대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를 71만6000대로 정하고, 판매·마케팅·상품·서비스 등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다. SUV를 중심으로 한 신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상품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나, 하반기에는 신형 싼타페를 각각 출시하며 판매 확대에 힘쓰는 한편, 코나 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 넥소(NEXO) 등 친환경 SUV 2개 차종

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는 올 한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목표를 61만대로 잡았다. 기아차 판매 확대·브랜드 고급화의 선봉장은 ‘스텔라’다.

기아차는 지난해 연말 첫 선을 보인 스텔라를 올해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판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신형 K9’을 선보이며 스텔라와 함께 브랜드 고급화 및 수익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력 볼륨 모델인 신형 포르테(국내명 K3)를 하반기에 출시해 미국 소형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모델이 다소 노후화돼 있는 K5·쏘렌토의 부분변경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다.

오늘 Lotto 제 789회차 당첨결과 (2018년 1월 13일 추첨)

2 6 7 12 19 45 + 38

| 순위 | 당첨개수 | 1인당 당첨금액 | 당첨기준 |
|----|-----------|----------------|---------------------------|
| 1등 | 15 | 1,140,976,825원 |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
| 2등 | 70 | 40,749,173원 |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
| 3등 | 2,437 | 1,170,473원 |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 4등 | 118,089 | 50,000원 |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
| 5등 | 1,868,863 | 5,000원 |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추첨일 경우 익명입찰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